

고흥군, 민선 8기 3주년 언론인 간담회 개최

미래 전략산업 실현 가속… 인구 10만 고흥 향해 전진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6일 군청 우 주홀에서 언론인과 간부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3주년 언론 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8기 지난 3년간의 군정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남은 1년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공영민 군수는 “민선 8기 지난 3년은 군민 통합을 바탕으로 고흥의 미래 기반 을 착실히 다져온 시간이었다”며, “이제는 우주·드론·스마트팜 등 미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국가산단 예타면제 확정 ▲드론 및 도심항공교통(UAM) 기반 전략산업 선점 ▲고흥형 대규모 스마트 팜 혁신밸리 조성 ▲고흥 3대 교통인프라 (고속도로, 철도, 국도) 추진 ▲전국 기초 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SA) 획득 ▲정부합동평가 전남 22개 시 군 중 최초 1위 달성 등 주요 성과가 소개 됐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한 경 개선을 위한 변화도 강조했다. ▲고 흥 관광객 1천만 시대 기반 마련 ▲‘돈 되 는 축제’로의 지역축제 패러다임 전환 ▲ 2027년 제66회 전남도민체전 유치 확정 ▲농수축산물 수출 판로 확대 ▲권역별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인일자리 확대 등 은 군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성 과로 평가된다.

공영민 군수는 ‘2030 인구 10만 고흥’ 실현을 향후 1년간의 핵심 목표로 제시하 고, 이를 뒷받침할 3대 미래 전략산업과 3 대 교통인프라 연계 전략을 함께 설명했다.

고흥군은 해당 목표 실현을 위해 새 정 부 대선공약에 반영된 고흥 관련 6개 핵 심과제의 국정과제화를 적극 추진 중이



다. ▲광주-고흥 고속도로(53km) ▲고흥 우주선 철도(46.8km) ▲우주발사체 융복 합 클러스터 ▲미래비행체 산업 허브 육 성 ▲그린수소 기반 스마트팜 에너지 자 립화 ▲국립 고흥다도해산림치유원 조성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통해 고흥의 산업 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꾼다는 구상이다.

이와 더불어, 전남도가 새 정부에 건의 할 7대 대선공약의 세부사업 가운데 고흥 관련 사업은 ‘우주·드론·스마트팜’ 3대 전 략산업과 3대 교통인프라 확충 등을 포함

한 총 14건이 반영돼 있다. 고흥군은 이들 사업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전남도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공영민 군수는 “고흥안은 기반을 다지 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군민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 며 “군민과 언론인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과 조인이 고흥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 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담양군, 6월 마지막 주말 ‘담빛축제’로 물든다

국악·무용·트로트 어우러진 문화공연과 시화전

담양군이 6월의 마지막 주말을 풍성한 문화공연으로 수놓는다.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오는 28일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야외무대에서 ‘2025 담양 문화가 있는 날 - 담빛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담양지회(회장 박성애)가 주관하고, 전라남도과 담양군이 후원 하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지역의 대표 명소인 메타세쿼이아길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무대가 마련된다.

본행사에 앞서 오후 2시부터 사전 공연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띄우고, 이어 문인협회 소속 서정화, 김현순, 차상영 시인의 시 낭송을 시작으로 본 무대를 연다.

공연은 K-그리스의 합창구·우도농악 설장구 놀이, 대금 독주, 강선영 류 수진출, 담양 외우농악 등 전통 예술 공연과 함께, 대서랑무용단과 담양 출신 트로트 가수들의 무대로 흥겨운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 일원에서는 담양 문인들의 감성이 담긴 시화 작품 20여 점이 전시돼 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박성애 담양지회장은 “담빛축제는 지역 예술인들이 담양의 정서를 예술로 풀어낸 무대이자,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담양의 멋과 감성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라며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담양의 멋과 감성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장보고장학회(이사장 신우철)는 지난 20일,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총 3억 6천만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다자녀 장학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출생·인구 소멸 등 지역사회의 위기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장보고장학회에서는 다자녀 가정이야말로 지역사회의 미래를 지탱하는 중심축이라고 보고, 장학 지원을 넘어 교육과 인구 정책이 결합된 지역 공동체에 대한 투

장보고장학회, 2자녀 이상 1,380가구에 장학금 지급

올해 장학금 대상 기준 완화, 3억 6천만 원 규모 지급해

자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기획했다.

수혜 대상은 완도군에 거주하면서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정이다.

장학금은 초등학교 10만 원,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교 30만 원, 대학생 50만 원으로 두 자녀 이상 중 상급학교에 재학 중

인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됐다.

올해는 장학금 대상 기준을 지난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우철 이사장은 “아이들 둘, 셋 키우다 는 것이 요즘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안

다”면서 “장학금이 부모님들께는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아이들에게는 지역사회가 자선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따뜻한 메시지로 전달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장보고장학회는 2007년 설립 이후 인재 육성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장학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관내 중·고등학생에게 서울 강남 인터넷 강의 수강권 지원을 통해 도농 간 교육 불평등 해소와 동등한 교육 기회 보장에 힘쓰고 있다.

완도/장성인 기자

순천시, 찾아가는 기술지도로 현장중심 영농지원 강화

작물별 수시 현장방문, 맞춤형 영농상담으로 신뢰 회복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농업 현장과의 밀착 소통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현장대응팀 운영과 전 직원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현장 중심의 맞춤형 영농서비스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신설된 현장대응1팀(과수)과 현장대응2팀(채소·특작)은 작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시 현장방문을 통해 병해충 진단, 재배기술 상담, 생육상태 점검 등 밀착형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고, 농가별 맞춤형 상담을 적극 추진하여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등 농업인과의 신뢰 회복과 만족도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는 매주 수요일을 ‘농업현장 방문의 날’로 정하고, 전 직원이 작물별 농업현장을 찾아 기술지도와 애로사항 청취를 병행하는 등 찾아가는 소통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영농 맞춤형 현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직원

을 대상으로 농촌진흥청 현장대응 전문가를 월별로 초청하여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의 기술지도 역량과 업무능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까지 찾아가는 농가 맞춤형 영농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과수 재배 농가 및 과원 방문 상담 82건, 채소 및 특용작물 재배기술 영농상담 110건, 복숭아 영농현장 컨설팅 등의 실적을 달성했다.

최근에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복숭아 탄저병 등 주요 병해충 확산을 막기 위해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여 복숭아 재배 농가에 약제를 지원하는 등 선제적 방제 활동을 실시했다.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대응팀을 중심으로 농업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작물별 신기술 보급과 병해충 관리에 있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기술지원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화산백련지 일원에서 열리는 제28회 무안연꽃축제 기간, 관광객과 군민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 근절 및 물가안정 캠페인을 집중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이 가격이나 서비스 문제로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역 상인들에게 가격표시

무안군, 연꽃축제 기간 바가지요금 근절 및 물가안정 캠페인

정찰제 운영·친절 서비스 확산으로 관광객 신뢰 제고

제 준수, 정찰제 운영, 친절 서비스 확대 등을 독려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홍보함으로써 물가 안정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안군은 축제 기간 관계 공무원과 합

계 ▲바가지요금 게도 및 점검 ▲가격표 및 원산지 표시 실태 확인 ▲착한가격업소 홍보물 배부 ▲친절 서비스 실천 다짐 캠페인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친절한 서비스, 정직한 가격’, ‘바

가지요금 대신 미소를 드립니다’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과 홍보물을 축제장 곳곳에 게시해 캠페인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문덕 지역경제과장은 “무안연꽃축제는 무안을 대표하는 축제로 많은 외부 관광객이 찾는 만큼, 지역경제와 소비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상생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군 제공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저를 찡하고 있는 것일지도.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한들수룩 나 자신을 사랑할 것

늘 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헛살 같은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나보다 원한 사람을 만나도 기죽지 말 것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일까

가연스레 생각

평범함의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마음이 편해진다면

몇 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려낼 수 없는 것이긴

평화적인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걸

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언제나 우연치

색감처럼

타성에 찰지 않을 것.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늘 주의를 기울일 것

알고 싶은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티내고 있다는 것과

코자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너의 우주와

소중함을

좋은 생각으로 나를 채울 것

우어도 보는 것.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해줄 것

한드서

잠시

평범한 것은

가득한 사람,

평범한 것은

좋은 거라면

언제나 우연치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